

소프트웨어 얼라이언스(BSA) 조사 결과, 한국 클라우드 컴퓨팅 정책 총 24개 국가 중 12위 차지

- 소프트웨어 얼라이언스, 전세계 24개 IT 강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정책을 평가한 '2016 BSA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스코어카드' 발표
- 한국은 2013년 8위에서 4계단 하락, 12위 기록
- 일본, 미국, 독일, 캐나다, 프랑스가 상위 1위부터 5위 차지... 조사 대상 국가들 간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프트웨어 얼라이언스(BSA | The Software Alliance, <http://www.bsa.org/>)가 최근 각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조사에서 한국이 총 24개 IT 강국 중 12위를 차지했다. 이는 2013년 8위에서 4계단 하락한 순위로,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법규 및 규제 환경이 최근 클라우드 혁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6 BSA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스코어카드'는 전세계 IT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총 24개 IT 강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준비상황을 평가한 결과다.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7개 정책 분야에 대한 각국의 강점과 약점을 기준으로 순위가 매겨진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비용효율적인 방식으로 스타트업, 소규모기업, 소비자와 정부를 비롯한 모든 주체들의 빠르고 효과적인 기술 접근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전례 없는 새로운 차원의 연결성과 생산성 및 경쟁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거의 모든 국가들의 클라우드 컴퓨팅 정책 환경이 BSA의 지난 2013년 조사 당시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국가들 사이의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졌으며, 상위권 국가들이 정책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온 데 비해 중위권 국가들은 다소 정체된 모습을 보였다.



소프트웨어 얼라이언스의 아태지역 정책 담당인 제러드 랭글랜드(Jared Ragland) 수석 이사는 “전통적 IT 강국인 한국이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서 다소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각국 정부는 자국의 정책이 전세계 클라우드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순위 발표는 전세계 각국 정부에 클라우드 도입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을 일깨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체 순위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 나라는 순위가 6계단 상승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5계단 상승한 캐나다였다.

그 밖의 주요 조사 결과

이번 조사에서 상위 1위에서 5위는 각각 순서대로 일본, 미국, 독일, 캐나다, 프랑스가 차지했다.

주목할만한 점은 태국과 브라질, 베트남의 경우 비록 전체 순위에서 하위권이긴 하지만,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중위권 국가들과의 격차를 좁히고 있다는 점이다. 이 밖에, 본 조사의 대상 국가였던 전세계 주요 IT 시장은 비교적 완만한 상승을 보이며 안정세를 유지했다.

한편, 우려스러운 동향도 감지됐다. 클라우드 컴퓨팅 정책의 국제적 공조를 도모하거나 자유무역 정책을 활성화하는 국가들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들의 국외 데이터 전송에 관한 새로운 규제 정책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4개 국가 전체의 순위 및 조사결과 전문은 웹사이트(www.bsa.org/cloudscorecard)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 얼라이언스 소개

소프트웨어 얼라이언스(BSA | The Software Alliance (www.bsa.org))는 각국의 정부 및 국제 시장을 상대로 글로벌 소프트웨어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로,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업체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회원사들은 경제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전세계 60여개 국가에 지부를 두고 있는 BSA는 불법 소프트웨어 근절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기술 혁신 활성화 및 디지털 경제 성장을 위한 공공 정책을 지원한다.

<자료 문의>



호프만에이전시코리아

김잔디 대리

Tel. +82 2 737 2947

Email: jkim@hoffman.com

임선주 부장

Tel. +82 2 737 2944

Email: oim@hoffman.com